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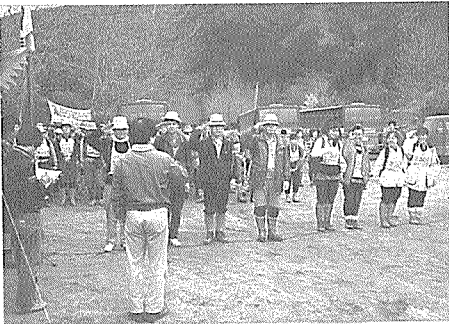


李 愚 鍾
本會 總務部長

제2회 전자공업인 노사화합 친선등산대회를 마치고...

작년 늦가을 유명산에서 제1회 대회에 이어 두번째로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에 위치한 청계산에서 전자업체 및 상공부 전자전기공업국과 본회 임직원 250여명이 참가하여 성대히 거행되었다.

본 등산대회를 추진하면서 장소물색, 등산코스, 평가기준, 개최일시 등 제반사항을 등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확정된 후 회원사에 통보하였다. 참가접수 결과 50개팀이 신청했다. 행사 전일부터 많은 비가 내렸고 참가업체로부터 행사를 예정대로 추진하는지 문의전화가 잇달았고 관상대 예보는 당일은 중서부지방에 한 두차례 비가 온다는 소식뿐이고 연기할 수도 없어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울리 만무였다. 새벽 2시경 다이얼 131번으로 돌려 일기예보 안내방송을 듣기까지 하였다. 5월 2일 예상한대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전 8시 관광버스 6대에 나누어 타고 시가지를 벗어나 일동읍에 다다르니 거짓말같이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하늘이 우리행사를 도와주는구나 하고 마음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버스 안에서 팀별로 자기회사 소개 및 노래자랑을 하면서 모두들 즐거운 표정이다. 비가 견힌 청계산은 나무들이 생기가 넘치고 푸르름이 싱그럽기만 했다. 다른 산에 비해 등산객의 발길이 뜸하여 오염이 안되고 깨끗하고 아름다웠다. 개회사에 이어 상공부 전자국장님의 격려사를 끝으로 정해진 코스를 향해 두개조로 나눠서 1분 간격으로 산행을 시작했다. 출발선에 일렬로 서서 국장님 이하 대회 임원진들의 격려박수를 받으며 패기에 찬 선수들의 모습은 늠름해 보였다. 맨 마지막조의 출발을 확인하고 바로 산행을 시작했다.

지정된 위치에서 심판진들의 진행과정과 병목현상 및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는지 조급한 심정에 전일

수면부족도 무릅쓰고 산행을 서둘렀다. 위키토키로 심판들과 교신하면서 정상에 도착하니 다행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장비검사, 팀워크, 필기시험 등 모든 면에서 혼잡하지 않고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다. 산행 시간이 2시간을 예상했는데 베테랑 팀은 1시간 35분에 주파하기도 했다. 집행부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면서 선수들이 속속 도착했다. 자연보호의 일환으로 오물을 수거해 들고 들어오는 팀들이 많았다. 보는 이로 하여금 흐뭇한 광경이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 힘차게 끝인하는 팀들에게 “수고했습니다”하고 격려의 악수를 청했다. 보람되고 흥분된 감정을 억누르면서 산행은 무사히 끝나고 심판진들이 채점표를 집계하는 동안 레크레이션이 시작되었다. 역시 산을 좋아하는 산사람들은 재능도 다양하고 노래솜씨도 수준급이었다. 특히 1회대회에 이어 2회에도 참가한 팀들은 서로 익숙해져서 모두들 추위도 잊은 채 즐거운 표정이었다. 3시간동안 모두들 화합과 친목으로 뭉쳐 전자공업인의 긍지를 힘껏 발휘하였다. 특히 정해주 국장님의 노래솜씨는 듣는 이로 하여금 재청이 연발하여 특기자랑에서 특별상까지 수상했다. 심판위원장의 심사결과발표에 이어 수상팀의 환호 속에 시상식을 끝으로 귀환버스에 승차한 시간이 오후 6시였다. 옛말에 “어진 이는 산을 찾는다”고 서로가 화합하고 이해하면서 곳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참석자 모두가 혼연일체되어 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다. 아울러 업계의 생산직·관리직(임원), 상공부 전자전기공업국, 전자진흥회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체력단련과 화합의 장이 된 것을 발판으로 전자공업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진행위원장으로서는 1회보다 더욱 짜임새있는 대회가 되고자 노력했지만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대회는 더욱 부족한 점이 없도록 보완하여 좀더 알차고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한다. 전자공업인의 앞날의 발전과 행운을 빌면서 이번 행사에 앰프로 무상으로 대여해주신 인켈 PA(주), 무전기를 대여해준 국제전자 그리고 부상을 협조해주신 가전3사, 기타 협찬업체에 감사드립니다.

